

具體的 存在의 構造

李載薰

우리의 生或은 經驗이라는 것은 單構想이 아니요, 主觀的 心理的의 것도 아니다. 그것이 暗示하고 잇는 것은 客觀的 世界이며 우리의 生 또는 經驗이라는 것은 客觀的 世界 안에서 되는 것이니 그 안에는 能動과 受動的의 二重作用이 잇음을 볼 수 있다. 그렇나 經驗 안에 드러오는 者가 무엇이 나다 知識의 材料가 되며 意識과 交涉을 가지고 잇는 것이 안이다. 具體的 經驗은 오직 그대로 잇을 뿐이다. 知識이 될 刺戟은 經驗 안에 現出하는 것과 能知 안에 現出하는 것 사이의 差異를 가질 때 或은 矛盾이 잇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며 따라서 그 差異或은 矛盾이라는 것이 現出하는 性質과 方式에 따라 問題 其 自身の 性質을 規定할 수 잇을 것이다. 그럼으로 이 問題에 對한 答은 經驗 其 自身の 存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대로 잇는 具體的 經驗이 分裂되며 었던 意識의 內容이 能知者에 對立할 때 即 單純한 眞實的 存在가 「무엇인가」라는 性格을 가질 때에 잇는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을 맞는 者가 잇으며 물음이 잇으면 물음을 받는 者가 잇으니 普通 이것을 主觀이니 이 客觀이니 하고 區分하고 있다. 認識現象은 옛날부터 이 二者가 그 根本條件에 基하여 相互關係或은 相互規定함에 잇다고 하였다. 主觀이 없는 客觀도 없을 것이며 客觀이 었는 主觀이 었는 것과 같이 이 二者는 認識論 立場으로써 보면 對他的 相關的 存在이다. 本體論 上으로 보면 客觀이 認識 以前에 主觀을 떠나 自存하고 잇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그 是非를 論하려는 것은 았이다. 우리는 오직 二存在가 如何히 自己의 具體的 存在를 드러내는가를 보고저 할 따름이다.

經驗의 主體는 精神과 肉體이다. 우리의 肉體는 그 主體로 하여금 肉體 自身 그 一部分을 構成하고 잇는 自然의 世界에 關係식히며 精神은 이 主體로 하여금 그 私的 世界에 들어가게 한다. 精神이나 肉體이나 우리 各個이 適應하지 았으면 았이 될 關係의 體系 또는 秩序의 原理를 表示하고 있다. 即 「나」라는 存在는 肉體를 가진 者로서는 物理的 實在라고 생각되는 秩序, 原理

에 쫓지 않으면 앎될 것이다. 이에 모든 存在에 共通한 空間이 있으며 其 空間 안에 一點을 占領함으로써 다른 者と 並列並置되어 잇을 뿐더러 經驗 안에 나타나는 것에 對하여서는 共通한 時間이 있으며 그 나타나는 者는 前後라고 하는 一定한 關係를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空間과 時間을 占有하고 잇는 其 限定잇는 範圍 안에서 活動하고 잇으며 할 수 잇는 것이니 物理的 世界에 잇어서는 原子가 相互外的 關係에 잇어서 實在하고 잇는 것과 마찬가지로. 我汝할 것 없이 結局은 엇던 秩序界의 構成要素일 것이며 오직 空間을 占有하고 잇다는 것을 除하고는 모든 性質을 抽象할 수 있다. 이러한 秩序界에 屬하고 잇다는 것이 常識上 쏘는 科學的 意味로써 存在하고 잇다는 것일 것이다. 그렇함으로 여기 우리에게 經驗되는 것의 一般特徵은 모든 사람에게 alike 認識이 된다는 것 客觀的 內容을 일우게 된다는 것이다. 常識이나 科學 上에서 存在하다고 하는 것의 이 一般的이라든가 同一이라고 하는 것의 根據는 말하면 우리의 不斷한 注意가 經驗行爲 其 者 맞게 잇는 者에게 向함으로 生活이나 意識的 活動이라는 것이 經驗行爲 其 自身이 가지고 잇는 것과는 全然 다른 者에게 對하는 까닭이다. 即 經驗行爲 者 自身이 組織하고 잇는 內容에 意識的 注意를 하지 못하는 까닭일 것이다. 따라서 外的 實在가 自存的이라 함으로 그 統一이 우리의 存在를 決定하게 될 것이니 生活이나 認識이나 全然 그것에 依存하여 잇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哲學 上 素朴的 實在論의 批評은 姑捨하고 常識이나 科學 上의 實在라는 것이 單 外部知覺에 基하여 오직 記述하며 分類하며 組織있게 한 것에 不過함은 科學者 自身이 말하는 바이다. 그렇나 이 存在 定立 經驗에 對하여 經驗의 自我的 態度에 視向할 때에 우리의 經驗이라는 것은 經驗行爲를 떠나서는 잇을 수가 없는 것이며 經驗의 內容은 經驗行爲에 반듯이 附屬하여 잇는 것이며 잇지 않으면 앎이 됨을 안다. 同一한 것이 사람이 다름으로 因하여 다른 經驗을 엇게 되는 것은 立場의 相異도 잇겠지만 만일 同一한 立場에 잇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日常經驗하고 잇는 바이지만 이 事情을 엇더케 說明할 수 잇을가. 엇던 個人에 엇던 經驗이 特有하다고 하는 事象을 觀察하고 보면 그 經驗內容이 經驗行爲 안에 잇음을 알 수가 있다. 即 個人이 가지고 잇는 內部的 個性의 影響을 떠날 수 없음으로 그 곳에는 一般的 또는 同一한 性質을 보기가 困難하다. 우리의 經驗은 外部에 基礎를 가지고 五官을 媒介로써 얻는 感覺에 起因하지만 그렇나 그것은 感覺對象의 所産이 아니고 經驗行爲의 所産이라고 말하지 안으면 앎될 것이다. 內外的 區別이라는 것은 結局이 個人性이라는데 基하고 잇는 것이 앎일가 그것은 Leibniz의 Monad와 같이 永久히 산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다. 同一한 市街를 다른 方

向으로써 볼 때에 全然 다른 것이 보이며 同一한 宇宙를 表象한다 하여도 宇宙의 表象 其 自身은 多種多様이다. Monadology, 56,57 여기에 唯一無二한 具體的 存在가 哲學의 地盤으로써 노여잇음을 보게 된다. 우리의 具體的 生活이 分析이나 或은 抽象할 수 없는 唯一하다는 것은 그 背面에 唯一한 經驗의 主體의 作用에 基礎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世上에는 完全히 全然 同一한 것 內的 差異 本質的 相異를 보지 못할만한 두 本體는 存在하지 않으며 存在하려면 自己를 他와 區別할 特性이 잇지 않으면 안된다. 「라이브니쯔」가 말함도 이 意味로써 解釋了解할 것이다. 單子論八, 十參照. 이와 갖치 보면 認識上 眞理의 相對性을 말하며 物件의 客觀性을 否定하지 않는가 하는 疑心을 가질는지도 모르지만 事實 우리는 他人의 經驗을 絶對에 그대로 經驗은 못하는 것이다. 眞理의 客觀的 妥當性이라는 것은 抽象에 잇는 것이 많고 具體的 全體 其 者에 잇다. 이 意味로써 空間이나 時間이나 對象이나 事件이나 經驗行爲의 中心的 活動을 通하여 몸에 限하여서는 個人的이며 私的이다. 是故로 엇던 精神에 잇어서 모든 實在라는 것은 具體的 全的 經驗에 잇으며 모든 精神은 各其 特有한 經驗을 所有하고 잇는 것이다. 故로 哲學의 對象은 單 생각된 것이라든가 抽象的 存在가 안이고 人格的 基礎를 가지고 잇는 것이며 따라서 唯一無二한 存在이다. 哲學을 始作하면서 哲學을 定義하기가 困難하며 他人의 哲學의 定義를 볼 때 心底에 不滿한 情을 禁할 수 업다는 것은 이 때문이 안인가 하고 생각한다. 또는 哲學이 一見理論을 爲한 理論 갖치 보이며 서로 一致한 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大端이 曖昧漠然한 것갓치 보일 뿐더러 그 學說을 理解하기가 甚히 困難함도 이 때문이 안인가 科學的 知識갓흔 것은 여기에 反하여 實際的 實在에 模型을 取하며 實로 正確하며 組織이 整然하며 共通性이 잇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正確이라든가 共通性이라는 것은 一般的 經驗 即 抽象의 產物이고 具體的 實在者가 안이다. 哲學的 認識은 希臘哲人이 創見한 智慧이다. 그것은 單客觀的 世界를 表象하는 것이 안이고 人格的 內容을 包含하고 잇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共通하다는 것은 모다 그 自己中心的 體系의 一部分 또는 一樣相을 抽象한 것에 不過하다. 自己中心的이라는 것은 「라이브니쯔」가 말함 같이 自己로 하여금 他를 區別하는 根據이며 이로써 自己는 他와 無限한 關係를 맺을 수 잇는 것이다. 吾의 經驗하는 바는 吾 自身の 經驗의 部分을 形成하는 것이며 그 部分은 有機的이다. 即 其 部分은 全體를 限定하며 이로써 그 部分은 全體로부터 其 自身の 特性을 엇게 되는 것임으로 우리는 部分的 疑問的 經驗을 通하여 自己 自身을 알게 되는 것이다. 特殊的 存在 即 全體

를 部分 안에 包含한다는 것은 이러한 性格을 가지고 있음이 얹인가. 自然科學에 있어서 物理的 實在의 概念에 基하여 잇는 實在라는 것은 모다 經驗의 主體에 對하여 共通한 것이며 其 世界에 잇어서는 모든 經驗의 主體는 오직 一定한 空間과 時間을 占有하고 잇으며 相互 因果 必然的 作用의 關係로써 그 存在를 保持하고 잇을 따름이다. 따라서 그 곳에는 內面的 理解라는 것은 잇을 理가 없다. 우리가 무엇을 認識한다든가 經驗할 때에는 그것은 單 事實로서의 認識이 얹이며 無限한 可能的 世界와 關係를 맺는 超自然的 意義를 가지고 잇는 것이다. 科學이나 科學的 方法으로써 얻는 認識에 잇어서는 우리의 精神은 오직 自然的 素質과 傾向을 따르며 쫓는 듯이 보이지만은 哲學的 認識에 잇어서는 精神은 自然的 傾向이나 動向에 逆行하고자 함을 感하고 잇으니 이 事實로서 보면 反對物을 產出할 契機가 그 곳에 包含되어 잇음을 알겠다. 여기에는 共通的이라고 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對하여 全然 私的이다. 이러한 世界를 構成하고 잇는 思惟, 感情, 感覺, 欲望, 想像, 意向 갖흔 것은 決코 原子的 要素가 얹이다. 우리의 肉體는 分解될지라도 그 構成要素는 殘存한다. 그 要素는 오직 分離하여 잇을 따름이다. 精神은 分解될 때에 構成要素로써 分離되어 存在할 것이 업다. 分解된 人格의 現象이라는 것은 物的 分解의 共通的 事實과는 原理에 잇어서 全然 다른 것이 안이나. 그것은 單一한 것이며 其 自身 可能的 完全성을 包含하고 잇는 한 存在이다. 「벨그손」이 反復力說함과 갖치 우리 意識의 現象이 實로 具體的이며 特殊的이고 個性的임은 그것이 物的 對象을 表象할 때 經驗의 主體 即 人格的 統一의 表現인 까닭이다. 自我的 Ichliche인 것은 其 次元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에 吾人은 「훗셀」가 自然的 態度 Natürliche Einstellung도 브터 形相的(本質的)態度 Eidetische에 轉換하려는 精神을 엇던 意味에 잇어서 잡을 수가 있다. 自然的으로 보면 바로 自然的 世界가 보일 따름이다. In der natürlichen Einstellung kann eben nichtsanderes als die natürliche Welt gesehen werden. Husserl; Ideen zu einer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s. 59 ff 116 우리가 自然界에 存在하는 人間으로서는 우리가 表象하며 判斷하며 意欲하며 쫓는 感覺機官으로써 物理的 世界를 感覺하고 이것을 單只 저기에 있다고 Vorhanden sein 생각하나 哲學은 이러한 自然的 態度, 常識的 態度 素朴的 實在論的 個人的 主觀의 立場을 克服하지 안으면 안된다. 그것을 對象으로 하는 自然科學 精神 科學 即 事實科學을 形相的 還元으로써 排除 Ausschaltung 쫓는 括弧 안에 挿入 Einklammern함으로 純粹主觀을 確立함에 哲學的 態度를 찾고자 함은 이 때 문이 안일가.

그러나 여기에 詳論할 餘裕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훗셀」은 Einklammern으로 其 超越的 要求를 中和 Neutralisieren식힘으로 現實적으로 作用하지 않도록 Ideen, S, 187, f하여 現象學的 判斷中止로서 自然的 存在인 意識과 先驗的 意識을 區別하여 其 本質을 發見함에 事實에 基礎를 주고저하며 이 같이 하여 「훗셀」은 其 意味志向의 見地로부터 對象의 側面과 作用的 側面의 相關關係로서 意識의 具體的 構造를 解明하고자하나 Ideen, S, 7. f92, 24, 103, 141. 이 같은 方法으로서 잇는 其 具體라는 것은 結局 이 現實과 直接關係가 없는 其 自身 固定한 어떤 可能의 立場으로서 其 本質을 考察하고자 함이 아닐가. 우리의 生活이 歷史的 社會的 存在임에 限하여서는 內部 經驗인 體驗을 先入見이나 理論을 떠나 Sachlichkeit 其 自體를 考察한다고 하나 其 自身 歷史的 社會的 現實性으로서 發展하면 歷史的 位置에 相對的인 具體的 現實意識은 現象學的 方法으로서는 抽象을 떠나서는 不可能한 것이 아닐가. 意識의 現實性은 單經驗의 內容으로서가 아니고 歷史的 社會的 現實性으로서 體驗되는 것 그것은 「벨그손」의 純粹持續이라는 것 보다 「헤겔」의 絶對精神에 갓잡지 않을가. 현상學的 方法으로써 意識의 具體性, 事實性을 破壞하고 잇는 것은 그 動的 見地에 充分이 徹底하지 못한 까닭이 아닐가. 吾에게는 오직 이것이 疑問이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作用의 經驗의 主觀的 活動은 世界의 存在가 얹이다. 오직 그것은 個人的 立場으로써 對象에 對할 때의 具體的 經驗의 實在를 말함에 不過하다. 이 立場이라는 것은 엇던 것일가.

二

經驗은 無限한 作用의 連續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單 思惟의 孤立함을 許하지 않으며 具體的 全體의 立場으로써 內的의 牆壁을 터치고 自身을 發展식히고저 하는 것이다. 本質을 開示한 存在 自體의 發展이다. 其 自發自展的 統一力은 單 要素의 集合이 될 수가 없으며 物的 事物을 分類하는 範疇으로써는 記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벨그손」도 말함 같이 空間的 範疇는 無論이오, 時間的 範疇도 物理的 事物에 對할 때와는 全然 다른 意味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經驗은 或은 意識의 흐림 Bewusststrome과 같은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그 흐림은 時時로 다른 狀態에 自然的 또는 外部的 原因으로써 分裂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狀態는 決코 構成要素가 될 수 없는 性質을 가지고 잇는 것임으로 그 各狀態로 말하면 一個體으로써 自己 自身 가운데 分離되지 않는 全體의 意味를 包含하며 그것을 表象하고 잇으며 그것과의 關係를 떠나지 않고 잇는 것이다. 그 自身 內面的 統一으로써 한 秩序界를 構成하고 있다. 數學이나 自然科學에서 研究하는 物理的 對象과는 本

質的區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前言한 바 具體的 經驗의 各 瞬間 吾人은 이 다른 秩序界에 對하고 있으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行動이 適應하고 있음을 보았다. 各 秩序界로 말하면 獨立하고 있을 뿐더러 原理에 있어서 自足的이며 他面 相互依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即 普通우리는 能動的으로 外部的 實在에 엮던 影響을 주지만 그 存在에는 何等の 影響을 주지 않음 같이 보인다. 여기에 反하여 外部的으로 獨立하고 있는 實在은 吾人の 活動을 制約하고 있음 같이 보인다. 왜 그러냐하면 그 實在을 服中에 두지 않으면 能動的으로 影響을 준다는 것의 自己 存續을 實上 생각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이 같이 생각하고 보면 吾人은 外部的 實在(自然)에 對하여 그 存在에 關함에 限하여서는 支配할 수 없는 것 自己의 힘을 發現한다 하여도 아모 것도 存在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故로 우리로부터 分離하여 있는 實在은 오직 우리의 思考의 對象으로서 나타나며 우리의 構成으로써 或은 感覺과 悟性의 作用으로써 그 性質을 認知, 理解한다고 생각할 맞게 업다. 그리고 그 對象으로 말하면 自己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共通하게 나타남으로 그 對象에 對한 認識의 相違는 各其 立場의 相違라고하며 實在 그 自身의 相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 兩界의 對立은 無論 根據없는 假定이 아니며 要請이 아니지만 그러타고 認識的 或은 論理的 推理로써 나온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것은 全然 우리 社會生活의 要求 또는 日常生活의 實際性의 必要로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經驗에 直接나타나는 바로 말하면 이 兩界의 關係에 있다. 우리가 其 兩項을 關係로부터 그리고 그 兩項을 各各區分하지만 우리의 認識 上의 區分으로부터 區別되는 다른 存在을 빼내일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 自存的 存在에 있어서는 그것을 經驗하기가 不可能한 까닭이다. 내가 엮던 對象을 알 때에는 恒常 반드시 能知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 對象이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이 對象을 아는 나는 알게 되는 對象과의 關係에 있어서 主觀으로써 作用하는 까닭이다.

具體的 經驗에 있어서는 이 두 存在는 그 融合에 있어서만 알게 되는 것이며 그 融合에 있어서 두 存在는 相異하는 存在로써가 아니고 統一로서 알게 되는 것이다. 이 同時적으로 出現하는 두 存在가 如何히 關係하는가 그 關係에 對하여 先驗的 可能性 같은 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 吾人은 이것을 窮極的 根源的 實在로써 그대로 받을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純粹經驗이라든가 直接經驗에서 말하는 單 主客未分이 아니라 그 統一로 말하면 辯證法的 性格을 가지고 있음을 以上 論한 바로서 能히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主體와 客體가 分裂對立할 때 各其 對立的 存在를 自存的으로 보면 世界의 實在의 統一은 우리가 觀察하는 自然의 齊一이라는 것으로부터 推理한 結果로써 엇을 밖에 없다. 卽 Lock와 같이 人間의 精神은 全然 受動的이 될 것이며 外界로부터 印象을 받으며 그 印象을 精神의 活動은 오직 識別함에 지내지 못할 것이다. 或은 Kant와 같이 印象을 受動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感性的 所與를 悟性的 範疇로써 構成한다고 할 것이다. 그 認識의 先驗的 制約은 能知者인 主觀 안에 있는 것이며 所知者인 事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實在 其 自身에 對하여 卽 感性的 現象의 窮極原因의 問題가 되면 不可知한 物 自體 Ding an sich가 됨으로 認識論的으로는 極限概念 Crenz Pegriff 와 같은 것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 같이 보면 一方의 存在가 統一의 原理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아니라 統一은 存在와 同時的으로 根源的이며 認識 以前에 實存하여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後驗的 事實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 卽 心에나 物에나 屬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具體的 存在는 相互關係 其 者에 있다고 볼 것이다. 主體와 客體는 어느 便이 原因이며 어느 便이 結果이라는 因果關係는 잊지 않는다. 우리의 具體的 存在인 具體的 經驗 또는 活動에 있어서는 이 두 存在가 그 안에 輻合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其 自身の 自己 發展 또는 實現으로써 分岐하여 오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無論 이것은 事實 上으로나 理論 上으로나 이 두 存在의 二元的 性質을 拒否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二元的 存在를 高次的 他者 우에 根據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으로써 經驗的 事實의 本質과 價値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根源的 統一이라는 것은 時間的으로나 論理的으로나 두 存在에 先立하여 있는 한 狀態를 말함이 아니라 그 두 存在의 本質的인 또는 必然的인 二元的 對立 其 者에 있음을 말함이다. 그럼으로 經驗行爲者인 自己라는 것은 感하며 思考하며 意志하며 行動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곳에는 이 두 存在가 融合하여 있는 것이며 그 自身 唯一한 個性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하면 그 自身 不可分離的 存在라고 말할 것이다. 融合이라고 하지만 이 두 存在를 決코 混同함이 아니다. 卽 混同할 수도 없지만 同時에 分離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經驗行爲를 이 같이 보면 二元性에 있어서의 統一이며 統一에 있어서의 二元性이다. 이 事實이 單融合이 아니라는 것은 그 個體的 存在를 超越하고 있는 實在와 連續하여 있다는 事理로써 알 수 있다. 卽 事實的 經驗으로써 보면 吾의 肉體는 나로 하여금 物理的 世界 客體的 存在의 秩序와 連續關係를 맺으며 그 곳에 있어서는 다른 個物과 같이 其 自身 組織的 統一體로써의 個性的 完全性으로써 區別되어 存在하고 있지만 吾의 心은 吾로 하

여금 精神界에 自己를 連續關係식힘으로 그 世界에 잇어서는 自己의 生은 比컨대 連續中 一個의 環에 지내지 못할 것이다. 吾의 内外에 超越한 이 兩界의 存在에 連續하여 잇다는 것이 卽 世界가 一面 自己를 吾人에게 엇던 者로써 보이며 同時에 吾人의 精神에 依存하여 잇지 않다는 것을 表示하고 잇는 것이다. 意識 안에 志向的 或은 現象的 存在로서 思念할 뿐만 아니라 意識 밖에 Transsubjektive Existenz, to on echo tes dianois 超主觀的 存在를 이것으로써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實踐의 客觀的 効驗性 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存在가 意識을 決定한다는 그 一面을 看過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經驗行爲者로서의 具體的 存在를 主體의으로만 볼 수가 없다. 經驗事實로써 보면 客觀的 存在를 그것과 連續하여 잇는 肉體를 통하여 實踐的으로 把握하고 잇는 것이니 主觀的 經驗의 事實과 客體의 存在와 의 內面的 關係는 이 具體的 存在 其 者 안에서만 볼 수 잇을 것이다. 故로 우리의 現實的 具體的 生이라는 것의 그 構造가 一面理論的인 同時에 他面 實踐的이라는 것의 根據도 여기에 잇다. 經驗의 이 二重의 性格은 經驗行爲者를 境界로 하고 或은 中心으로 하고 全然 相異하는 分離되어 잇는 두 存在가 어떠한 契機로써 結合되는 것 卽 다시 말하면 本來 分離的으로 存在하여 잇는 것이 結合됨으로써 統一을 얻는 것이 아니라 單一한 具體的 存在는 本源的으로 單一한 것이며 二種의 存在의 對立, 分離는 經驗行爲者 自身 안에 內屬하여 잇는 것을 抽象한 것에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他言 하면 吾人의 具體的 存在로 말하면 普通 肉體와 精神의 結合으로써 되엇다고하나 이것이 別서 理論上 區別이며 實上 肉體나 또는 精神을 具備하지 않은 現實的 人間의 存在는 생각할 수 없다. 이 二者는 本質的으로 單一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같은 單一한 有는 그것에 對立하는 無로써 區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밖에 잇는 客體의 存在에 關하여서는 前者와 그 關係가 反對의 現象을 나타내고 잇음을 注意할 것이다. 卽 우리는 物과 心을 相異한 存在로 區別하며 分離하여 잇는 者로 역이며 決코 單一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럼으로 吾人의 現實的 存在에 잇어서는 精神과 身體의 二元性은 全然 理論的이지만 그 統一은 實踐的이다. 여기에 反하여 客體的 存在에 잇어서는 物과 心의 統一은 理論的이며 그 二元性이 實踐的이다. 그런 고로 單一한 存在가 그 中心的 活動을 통하여 世界가 表現된다는 個體의 立場으로써 보면 經驗行爲者의 活動에 잇어서 두 存在의 完全한 融合의 限界로부터 그 人間主觀이 向하는 範圍가 넓어지면 지도록 더욱 이 두 存在가 分離하게 되는 것같다. 何如튼 經驗的 事實과 存在가 全然 다른 秩序에 屬한다는 것은 임의 考察하여 왔으나 具體的 存在의 性格으로써 이 두 存在로 말

하면 辨證法的 統一의 根柢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卽 自己發展의 過程 가운데 두 存在가 成立함은 明白할 것이다. 그 發展의 活動은 一面內面的 求心의 方向을 取하고 있으나 他面求遠心의 卽 밖에 向하고 있다. Hegel 이 有를 規定하는 것은 卽 自的 概念이 一者 안에 있어서 밖에 措定되는 것 따라서 그것의 展開인 同時에 有가 自己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 Diese Fortbestimmung in Einen ein Heraussetzen und damit Entfalten des an sich seienden Begriffs und zugleich das Insichgeben des Seins, ein Vertiefen desselben in sich selbst. Encyclopedie § 84. 한 것은 이 意味로써 理解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有限한 現實的 具體的 存在인 吾人은 이 두 힘의 平衡에 自己發展의 具體的 動的 姿態를 볼 수 있다. 物心의 對立은 이 같이 現實의 具體的 存在의 自己活動의 性質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基礎하고 있는 思惟가 具體性을 가지게 되는 것은 卽 그 思惟가 經驗事實의 本質로써 그 存在의 모든 瞬間에 있어서 實踐的 要求를 떠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 意味로써 認識은 經驗 其 自身의 伸展 또는 改造를 爲함에 그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런 고로 經驗世界에 나타난 바로써 보면 自然은 吾人의 活動의 領域으로서의 世界觀이며 理論的으로 世界觀을 그리는 것은 實踐的으로 그것을 使用하는 것과 相應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實踐的 主體에 對한 者로서는 特히 環境的 存在로서 單 周圍 世界 存在로부터의 區別의 重要性을 看過할 것이 아니다. 具體的 思惟라면 이 地盤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吾人은 思惟가 行動에 移去하며 環境의 改造로부터 經驗 其 自身의 改造發展을 圖謀하는데 그 意味와 價値를 보고저하는 Pragmatism 特히 Dewy의 實驗主義哲學의 功蹟을 여기에 承認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哲學的 基礎를 여기에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푸락마티즘으로 말하면 結局 經驗世界의 事實의 說明에 지내지 못함은, 그 經驗的 事實을 根源的으로 制約하고 있는 原理에 對하여서는 何等의 回答도 주지 않으며 또한 못고저 하지도 안는다. 우리의 不滿은 여기에 있다. 그 原理라는 것은 自己 同一한 經驗行爲의 主體를 말함이다. 吾人은 經驗行爲의 事實로서 其 主體를 自覺하는 것이다. 그것은 其 自身의 根據에 依하여 存在하는 卽 自的 An sich sein이다. 이 卽 自的 自我가 對自的 fur sich인 非我 卽 事實인 經驗에 內在식힘에 비로소 具體的 經驗 卽 統一을 얻게 되는 것이다. 經驗의 統一이 認識이라 할 것 같으면 이러한 認識은 對自的 存在가 卽 自的 存在인 者의 實踐으로서 實現된다고 볼 것이다. 故로 具體的으로 「산다」는 것은 自己를 單肯定하는 것이 아니라 自己가 自己를 否定하는 意識 否定을 通하여 自己의 存在를 自覺하는 生이라고 할 것이다.

歴史的 現實은 이러한 存在에 있어서 補捉되며 理解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客體的 存在은 無論 組織的 統一의 世界이지만 그것은 具體的 經驗의 것과 全然 雪質이 다른 것이다. 그 外的 關係인 體系로 말하면 아모 獨點的 中心을 가지지 않은 것이며 또한 그것의 어떠한 部分을 取하여 보든지 唯一한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物理的 世界의 本質的 特徵은 延長을 가지고 있는 實體이며 그것의 모든 部分으로 말하면 다른 部分과의 關係로써 相互影響하는 것은 必然的이며 決定的이다. 그것의 連續은 經驗의 것과 달리 內面的 性質에 있는 것이 아니다. 即 其 連續性은 空間概念에 있다. 空間概念은 外界性의 概念이다. 따라서 外界의 存在라면 三次元의 空間 及一次元의 時間 안에 있는 物的 實體의 相互關係로부터 생기는 事件의 體系이다. 即 모든 運動은 相互作用으로써 平衡을 取하고 있으며 그 構成要素는 相互果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생각하여 올 새 主體, 客體, 認識을 外界의 存在로 하여금 自存하여있는 것으로 그것을 表象하는 것이며 또는 經驗的 主體와는 無關係하게 있다고 할 것이면 그 概念性과 實在性 사이에 認識이 成立하려면 共通한 要素가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이 難問이다. 아모 共通性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日常生活에 있어서 조금도 疑心없이 이 假定 우에서 모든 것을 認識하고 있으며 行하고 있는 日常性은 何故요하면 前言한 바이지만 그러한 區別對立으로 말하면 實際生活의 有用이나 便宜로부터 오는 것이다. 實際便宜라는 것이 그렇게 한다.

經驗行爲의 主體는 全然 個體的 實在이다. 그것은 아모 것에도 內屬하지 않는 獨立自存的 存在이다. 吾人은 이것을 모든 사람의 意識生活이 서로 다르다는 事實의 根據로서 論證한 바이며 이로 말때암아 吾人은 只今 말한 바 實在性과 觀念性 또는 存在와 認識을 科學이나 常識에서 말함과 全然 다른 方法과 根據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經驗行爲가 全然 個性的 存在이라고 할 것이면 吾人의 現實的 意識의 內容으로 말하면 全然 個人的 經驗이라고 할 것이다. 그림으로 「칸트」나 普通말하는 바 經驗을 心理作用으로써 意識 안에 나타나는 差別的 事實이나 또는 自然科學이라고 區別하는 것도 無防할 것이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無論經驗은 이 體驗의 意味로써 使用하고 있다. 經驗에 나타나는 主客은 返復하여 말한 바이지만 分離되어 있는 存在가 外的 機械的 紐帶로써 結合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二元性의 統一이며 統一 안에 있는 二元性이다. 「헤겔」이 말하는 바 區別도 自己 안에 包含하여 있는 具體的 統一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自己 同一한 者의 活動으로 얻는 綜合이다. Encyclopedie § 115, 215. 그 一項 또는 그것을 綜合하는 關係를 떠

나면 그 끝에 具體的 存在를 볼 수 없게 된다. 主體를 客體로부터 分離식히
 며 經驗되는 客體를 經驗하는 主體로부터 分離하면 그것은 圓을 中心과 圓
 周로 分함 같으며 그것을 各各 自存하여 잇는 것처럼 想像하는 것과 같다.
 個體로서의 具體的 存在에 잇어서는 自我와 非我 精神과 自然은 그 個人的
 具體的 經驗 안에 잇어서는 單 作用的으로 區別되어 잇는 存在이다. 靜的으
 로 絶對的 區別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이 생각하고 보면 吾人은 「파이
 브니쯔」가 말함과 같이 個體의 中心的 活動을 通하여 우리는 世界를 表象한
 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個體的 實體에 잇어서는 그 中心的 活動 안에 主客
 은 融合統一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生의 哲學的 自覺이라는 것은
 여기로부터 볼 수 잇는 것이 아닐가 여기에 田邊氏의 說을 빌면 「主觀と客
 觀， 心と物と云ふ如き， 對立はも生の分極性に基き生命體と環境との力の對抗
 に由來するのである. 然るに生は一方に於て力の對抗であり， 一應自己の外か
 ら自己に對抗して働く力と對立する自己の中心からの自發性であると共に， 他
 方に於てはか■る自己の外と見ゆるものを， 自己としで統一するのである. 從
 つて單に物理的に對抗する力の關係は一方強力なるものが他の弱性なるものを
 絶滅して強力なるものの優差たけの活動が物理現像として現はれるものとは界
 り. 生の統一に於ては環境の對抗力も單に絶滅せられるのでなく， 無論外から
 對抗するものとしては消滅するけれども同時に却つて， 生そのものの契機に變
 ぜられて生の具體的なる生ける動的統一が實現せられるのである」田邊傳士著
 哲學通論 二十二-二十三頁 哲學的 認識은 單存在와 非存在를 아는 것이 아
 니라 그 綜合 統一으로써의 活動을 自覺的으로 把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現實的 經驗의 內容으로 말하면 이런 活動의 方式에 따라서 決定됨으
 로 意味를 가지며 組織統一을 얻게 된다. 그 統一은 個性的이며 個性的임으
 로써 人格의 概念을 그 具體的 活動에 볼 수가 있다. 여기에 잇어서는 對象
 과 作用의 區分을 볼 수가 없다.

三

그러면 여기에 問題되는 것은 經驗主體相互間의 關係에 對한 것이다. 그것
 은 知覺, 思惟, 意志, 行爲 같은 問題 뿐만 아니라 社會的 秩序, 個人과 超個
 人과의 關係의 問題같은 것도 이러날 것이지만 여기에 吾人은 그 中心되는
 것을 簡單이 論하고저 한다.

既述한 바와 같이 經驗行爲者는 그 中心的 活動으로서의 各各 다른 立場으
 로부터 認識하며 그 認識이 그것에 限하여 具體的이며 唯一한 個性的 性格
 을 가지고 잇다하면 그 行爲者 相互間에 如何한 關係가 成立할가 事實 日常
 經驗으로 보면 自己는 他人을 알며 他人과 서로 通하고 잇으나 이 때에 吾

人은 普通 그 表情이라든가 動作이라든가 身體的 運動이라든가 特히 言語를 媒介로 하고 한다. 生物學的으로 볼 것이면 有機體의 適應이라고도 말하겠지만 前者의 事實을 取하여 본다면 媒介에 힘을 쓰는 手段, 道具로 말하면 自然的 世界에 屬하여 잇는 存在이지만 그것이 그것과 秩序를 달리하는 思惟, 欲望, 行爲같은 것을 他에 傳達식하기 爲한 그 自身 獨立하여 잇는 存在와 같이 보인다. 萬一 이 存在로서 行爲者 相互間에 通路가 열린다고 하면 그것은 相互自己에 對하여 外的이며 共通的 性質을 가진 것으로서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果然 그 秩序를 달리하는 者를 仲介로 함으로써 相互間의 通路를 열 수가 잇을가. 그 關係 傳達 相通을 物理的 世界를 仲介로 하고 한 精神이 다른 精神에게 影響을 준다고 생각할 것이면 이러한 精神은 經驗者로서 생각지 않고 그러타고 無論 空間的 存在는 아니지만 그것은 原子的 實體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Descartes가 精神과 物質의 通路를 腦의 松果腺에 찾은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個體로서의 經驗行爲者에 잇어서는 相互傳達하는 媒介인 道具는 外的이 아니며 또한 經驗行爲者인 個體는 空間에 並列並置되어 잇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말한 行爲者의 概念은 外界性의 概念인 空間의 圖式化에 基하여 잇는 것이 안인가답이다. 主體인 行爲者는 空間과 外界性 以上の 根元的 實在의 概念이다.

吾人은 이 事理를 明白히 하기 爲하여 仲介者인 言語의 構造에 들어가 보 고저 한다. 言語는 意味를 表現하기 爲한 手段이다. 故로 意味가 없다할 것 이면 物理的 空音으로 들날 것이며 文字도 어떤 것을 象徵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럼으로 意味는 그것을 表現하는 文字와는 獨立하여 그 以前에 存在하 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全然 다른 分離하여 잇는 有가 言語에 잇어 서 結合된 것 같이 보인다. 即 表現되지 안은 內的 直觀과 物理的으로 表現 되는 外部的 音聲의 結合과 같이 全然獨立하여 잇는 두 存在가 任意로 外部的 으로 結合된 것 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既述한 바에 이것을 比諭하여 말하면 意味는 精神일 것이며 表現은 그 自體일 것이다. 言語의 客觀性을 分析하여 보면 表現된 事態 *Verhalt*와 表現하는 態度 *Verhaltung*로 分할 수 잇으나 그 사이에는 內面的, 必然的 關係가 잇을 것이며 이로써 單存在에 對 하여 이것을 *Sosein*으로써 區別할 수 잇다. 意味를 떠난 表現이라는 것은 表現이 아니고 同時에 意味가 表現을 떠날 때에는 아모런 痕蹟도 남길 수 업을 것이니 具體的으로 存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表現되지 안은 直觀 이 없을 것이며 自存하는 言語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 二者가 結合 統一 되어 表現되는데 비로소 具體的 個性的 存在가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은 意味的 存在이다. 그 關係는 決코 外的이 안이다. 그 사이에 잇어서 媒介하는 것

이나 媒介의 過程 안에 傳播되는 音波나 그 自身은 言語가 가지고 잇는 形相을 가지지 않는다.

普通主體와 客體의 關係 또는 主體와 主體의 關係는 日常生活의 便宜 或은 社會的 要求로 브터나러나는 것이며, 이러한 種類의 便宜나 要求라는 것은 矛盾업시 理路가 整然하다는 것 보다 重要하다는 것으로브터 오는 것이다. 이 意味로 哲學的 思索은 便宜로써 事實의 眞相을 보고저 함이 안이라 그 理論的 性質에 찾고저 하는 것을 알 것이다. 「훗셀」이 哲學을 根源의 學이라 하며 自然科學 精神科學 其他이 世上에 存在하는 方式을 그대로 許用하며 그것에 基하여 잇는 認識 또는 日常生活의 態度를 根本的으로 變更하며 如何한 存在定立에도 支配를 맞지 안는 先驗的 主觀性을 確立하고자 함도 그 精神에 잇어서는 이 때문이 안일가 생각한다. Ideen § 8 參照.

吾人은 이 갖치 日常生活의 便宜라는 것으로브터 精神과 自然의 두 世界를 그 種類에 잇어서 다르다고하며 엇던 種類의 關係를 가지고 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既述한 바와 갖치 經驗의 主體는 各其 中心을 달니함으로써 서로 分離하여 잇으며 그것이 外的 自然의 世界로 인하여 結合된다고 생각한다. 이 外的 存在라는 것은 外的 關係의 體系이며 主體는 그것과 一定한 外的 關係에 잇으며 그 共通的으로 所與되는 者를 通하여 서로 關係하고 잇는 것 처럼 보인다. 卽 主體와 主體가 서로 通하는 것은 外的 關係에 依하여 잇는 것이며 主體와 主體가 直接關係하고 잇는 것 갖치 생각되지 않는다. 主體의 經驗者는 空間을 占領하고 잇지 안치만 그것은 世界 안에 잇으며 따라서 空間을 占領하고 잇는 다른 實在物과 相關하고 잇는 것 갖치 생각한다. 後에 論할 바 일지만 經驗行爲의 世界는 意味의 世界이며 여기에 對하는 客體는 事物의 現實界이다. 經驗行爲가 物理的 世界를 自己活動 안에서 認識한다든가 或은 內屬하여 잇는 主要한 部分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 此에 反하여 物理的 世界가 經驗의 主體라는 것이 엇다하여도 그 存在에 잇어서 조금이라도 變動을 이르킨다든가 影響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極히 當然한 듯이 보이나 이것은 우리의 日常性의 態度를 가지고 이 두 存在에 對하는 까답이다.

그러나 經驗行爲라는 것은 無論經驗의 모든 狀態를 結合統一하는 活動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明白히 하고저 하는 것은 前言한 바로 推測하겠지만 物的 紐帶로써 되는 것이 양이라 持續的 記憶에 基하며 經驗의 中心的 活動의 所有者 卽 自我라는 者로브터 되는 것이다. 즉 모든 經驗을 自己의 것으로 包容하는 自己 同一한 者로써 되는 것이다. 吾人은 自己가 經驗한 것만 自己가 所有할 수 잇는 것이니 經驗行爲의 世界의 充實한 內容은 自己 안에서 엇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故로 吾人은 自己의 觀念, 感情, 慾望 갖흔 것이

한 主體로부터 다른 主體에 移去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또는 그것이 全然 自己의 意識 안에서 생기는 것과 다른 過程과 方式으로써 생긴다고는 決코 생각지 않는다. 具體的 經驗은 記憶으로써 結合되어 있는 相互連貫하여 있는 意味의 體系이다. 모든 經驗은 無論 었던 對象, 事件에 對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意味를 通하여서만 認識이 된다 할 것이면 그 意味는 經驗行爲의 所産이며 따라서 經驗行爲를 떠나지 못함에 限하여서는 意味는 意識的 經驗의 固有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은 他에 傳하며 表現되지만은 그것은 經驗行爲者 自身 안에서만 생기는 것이며 其者에 對하여서만 또는 其者를 爲하여서만 잇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An sich로서의 經驗行爲의 主體가 他主體를 如何히 認識하느냐 他人의 體驗을 自己가 再體驗한다는 說 或은 自己經驗에 基하여 類推로서 認識한다는 것은 以上 吾人이 考察한 바로서 全然 不可能한 것을 알 것이다. 前者에 있어서는 同一한 것을 認識하는 者가 있어야 할 것이며 後者に 있어서는 結局 自己의 經驗 以外の 것이 不일 것이다. Lipps의 感情移入說도 藝術的 理解에 있어서는 承認할 바이나 現實的 具體的 存在로서의 他我를 認識한다는 것으로는 그 根據가 薄弱하다고 할 것이다. 「훗셀」의 間主觀的 還元 Intersubjektive Reduktion의 問題가 있으나 只今 거기에 들어갈 餘裕를 가지지 못하였다. 他主體를 理解한다는 것은 그러면 結局 An sich에 있어서가 不이라 그 主體의 意識內容이 一定한 關係로써 表現된 意味로써만 理解할 수 잇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自己 經驗의 主體와 他人의 것과는 오직 具體的 直接的 經驗에 있어서 內部와 外部의 知覺의 作用으로써 識別될 것이며 自己나 他人이나 意味의 表現으로서의 存在이라고 할 것이다. 이 意味를 通하여 吾人은 相互認識과 理解를 하고 잇는 것이 不일가.

是故로 우리가 共通한 生命 即 超個人的 生命을 잡을 수가 잇으며 그 生命에 살 수가 잇다는 것은 意味經驗의 本質로서 當然하다고 할 것이다. 共通하다는 것은 生의 集合聚積의 總體가 不이다. 個個의 生이 即 全體의 生일 것이다. 社會性에 對한 難點은 其 個性에 잇는 것이 不이다. 唯一性이라는 것은 空間的 概念이 不이며 多樣性的 統一로서의 存在함이니 一切 中에 自己를 보며 自己 中에 一切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根源的 社會性이 成立한다. 그러나 前言한 바 實際生活上 主體와 主體는 其 共通히 所與되는 것을 通하여 關係를 맺는다고하면 여기에도 같이 社會性이 成立함을 보게 된다. 이것은 具體的 存在의 根源的 構造, 活動으로부터 成立하게 되는 것이니 이 두 社會의 形態는 各其 分離되어 있어서는 觀念性和 實在性 間에 通路가 不음 같이 一方으로 他方에 漸次的 推移를 許容할 性質이 不이오, 實로 그 現實的

形態가 矛盾的 存在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여기에 辨證法的 止揚 Aufheben이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의 具體的 存在의 本質은 이 對立이 그대로 包容되어 統一 안에 還元됨으로 自己 同一한 者로서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 안인가. 어떤 個人의 이런 統一的 經驗을 보면 그 個人이 屬하고 있는 또는 構成하고 있는 그 社會 全體의 經驗임을 阻止하지 않는다. 그럼으로 多樣性的 統一인 이 唯一性으로 말하면 그것이 自己보다 큰 生命에 산다는 것 社會나 國家를 爲하여 盡力한다는 것은 自己 同一한 그 唯一性を 버리는 것으로써 可能的 것이 안이다. 도리혀 事實은 여기에 反하여 社會와 國家에 自己의 生命을 바침으로써 無論 社會와 國家는 그만큼 發展을 보겠지만 이 때에 犧牲한 그 個人은 自己生의 內容을 貧弱하게 함은 얕이다. 한 行爲가 그 個人의 唯一한 性を 完成시키는 程度에 따라서 普遍的 道德性 其 自身을 豊富히 하고 있는 것이 얕인가. 各 主體는 各其 自己의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社會生活 集團生活을 하고 있음이 얕인가.

그럼으로 그 集團生活 其 自身은 一定한 計劃에 基하여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플라톤」의 理想的 國家라는 것도 個人의 完全性を 社會性으로 表現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人道나 國民性이나 社會生活이나 家庭이나 其他 었던 普遍的 概念이든지 個人의 精神을 떠나 어느 곳에 獨立하여 存在하는 것이 얕이다. 具體的 存在 其 者로서 우리가 산다면 이것들은 그 個人性的 完全성을 實現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現實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그 生活의 個性的 性格을 가짐으로써 存在의 權利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 自己를 犧牲함으로 그 個性을 잃게 되는 것이 얕이다. 主體와 主體가 結合한다는 것은 交換이 얕이며 그 個性에 屬하는 것은 아모 주는 것도 없거니와 받는 것도 없다. 具體性은 即 客觀性이다. 個性的 存在를 具體化한다는 것은 同時에 그 것이 屬하고 있는 全體를 具體化한다고 할 것이 얕일가.

故로 眞理의 標準은 自己가 萬物의 尺度임을 意味하지 않는 것을 能히 推察할 것이다. 其 意味하는 바는 「로이쓰」가 말함 같이 哲學은 本質的 社會的 形式에 있어서 多數한 얕이다. 無限히 多數한 個人的 人格의 諸見地— 個人的 見地의 이러한 相遠는 眞理는 眞理 自身の 構造의 多樣한 樣相을 相異하는 個人個人 안에 여러 樣式으로 投影하지 얕을 수 없다는 事實에 依할 것이다—의 綜合으로서의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Roycei Lectures on Modern Idealism, p. 242.

以上 論한 바는 秩序를 달리하고 있는 二存在를 其 統一의 概念인 具體的 經驗(體驗)의 形相에서 吾人의 具體的 現實的 存在의 構造를 보고저 하였다. 이것은 存在一般을 解明하는 것보다 나에게 있어서는 先決問題이다. 이 論考

는 오직 問題되는 其 輪廓을 그리여 봄에 不過하다.